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50분입니다.
2. 답안분량은 800~1,000자입니다.

문제

(나) (다) (라) (마)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요약한 후 (가)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제시문

(가) 레이 피스만(Ray Fisman)과 에드워드 미구엘(Edward Miguel) 교수는 UN에 파견된 146개국 1700명의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실시하였다. 1997년 1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5년간 뉴욕시 교통국에 보고된 외교관들의 주차위반건수를 조사하였는데, 그 당시 외교관들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주차위반이 보고는 되어도 벌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다.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는데, 가령 아프리카 수단 출신의 외교관은 5년간 121건, 이집트 출신의 외교관은 141건의 주차위반을 했지만, 스웨덴과 덴마크 출신의 외교관은 단 한 건의 주차위반도 보고되지 않았다. 피스만과 미구엘 교수는 UN파견 대사들의 위법행위는 대사들 개인의 도덕성 보다는 출신국가의 부패인식지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는 각 국가별 사회 전반의 부패 정도를 평가한 수치로, 2003년도 세계 부패인식 지수에 따르면 수단은 106위, 이집트는 70위, 덴마크는 3위, 스웨덴은 6위를 각각 기록했다 (순위가 높을수록 청렴한 국가로 인식되며, 순위가 낮을수록 부패한 국가로 인식됨) (Why Good People Sometimes Do Bad Things: 52 Reflections on Ethics at Work by Muel Kaptein, 32-33쪽 발췌 번역 및 생활과 윤리 167쪽 수정 발췌)

(나) 한 시대에 힘써야 하는 일은 한가지로 일반화할 수 없고 각각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들면 창업(創業)과 수성(壽城)과 경장(更張) 세가지 일 뿐입니다. (중략) 그 중에서 수성은 성왕(聖王)과 현명한 재상이 법령과 제도 등 다스릴 수 있는 도구를 모두 갖추고 예약을 훌륭하게 만들어 놓으면, 후세의 임금과 후세의 신하는 다만 이미 완성된 법규에 따라 가만히 팔짱을 끼고 이것을 준수할 뿐인 것을 말합니다. (이이의 경장론 更張論 중에서, 생활과 윤리 147쪽)

(다) 아마존 강 유역에 살고 있는 조에 족은 턱에 뽕뚜루라고 불리는 나무를 꽃고 다닌다. 뽕뚜루는 약 20cm 길이의 나무토막으로, 조에 족은 영구치가 나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 나무토막을 꽃기 시작한다. (중략) 치열을 나쁘게 만들고 몇 달에 한 번씩 갈아 꽃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그 들이 뽕뚜루를 꽃고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뽕뚜루는 조에 족을 상징하기 때문이

다. 조에 족 사람들은 뽀뚜루를 함으로써 자신이 다른 부족과 구분되는 조에 족의 일원임을 나타낸다. 또한 뽀뚜루는 미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서구 사회에서 귀걸이나 목걸이로 치장을 하는 것이 보편화된 것 처럼 조에 족은 뽀뚜루를 장신구로 여긴다. (사회 문화 92쪽)

(라) 히잡 쓰기를 거부한 채 사우디에 방문한 독일 여성 장관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히잡 착용을 거부한 독일 장관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국방부 장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방문했다. 장관은 사우디에 방문할 때 히잡 대신 정장을 입고 방문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들이 외출할 때 히잡, 아바야(히잡의 한 종류)를 입어야 한다. 하지만 장관은 "여자도 남자들과 똑같이 옷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히잡 착용을 거부했다. 장관의 복장은 사우디에서 분노를 야기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장관의 행동은 고의적이다. 이것은 사우디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국제 사회는 여성들을 억압하는 사우디의 법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최근 전당대회 연설에서 부르카(히잡의 한 종류) 착용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라이엔의 정장 차림 역시 사우디 등 이슬람에 대한 엄격한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JTBC 2016년 12월 19일 보도내용)

(마) 외교부 공무원들이 공문을 조작해 국민 세금을 부서 회식비로 써 온 관행적 비리의 전말이 한 사회복무요원의 내부고발로 세상에 드러났다. 개인적 보복 조치 등이 뒤따랐지만 여러 주변인들의 도움이 더해져 결국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 중인 23살 김경준 씨는 2013년 11월부터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맡았다. 처음 김 씨는 부서 회식이 지나치게 잦았다고 느꼈지만 외교부가 워낙 예산이 많은 부서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뒤 자신도 참석했던 부서 회식 비용이 공식적인 '업무추진비'로 처리된 내부 공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 깜짝 놀랐다. 참석하지도 않은 외부 기관 사람들의 이름을 버젓이 올려놓고 업무 협의를 했다며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런 식의 직원들 밥값 유용은 한두 번이 아니라 매달 수 차례씩 거듭됐다. 결국 김 씨는 지난 5월, 외교부의 업무추진비 유용 정황을 입증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꼼꼼히 모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제보 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에서만 이런 수법으로 모두 57차례에 걸쳐 1,400만원이 유용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뉴스타파 2014년 12월 26일 보도)